



공존과 상생의 공간  
**spigen Hall**

**GRAND OPEN**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슈피겐 HQ B2



자세히보기

복합문화공간, 슈피겐홀

150-200석 수용 가능 | 대관 문의 02.6713.641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vol. 139



빛을 주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시각장애인의 밤**  
제후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8년 9월 20일 통권 139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최수린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07+08  
July August

## Contents



- 04 포커스1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모아 올란바토르점 개소식
- 06 포커스2  
2018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 08 새소식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10 희망나눔  
'Seeing is Believing' - SC제일은행
- 12 사랑나눔  
효명장학생 STORY - 김장훈 님
- 14 해피스토리  
2018년 7월~8월 사업 현장
- 18 미리보기  
2018년 10월~11월 행사 및 광고
- 19 나눔플러스  
2018년 7월~8월 후원 안내

### 낙엽

-  
이해인

낙엽은 나에게 살아 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 깨우쳐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알려준다.

이승의 큰 가지 끝에서 내가 한 장  
낙엽으로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일까  
헤아려 보게 한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내 사랑의 나무에서 날마다  
조금씩 떨어져나가는  
나의 시간들을 좀 더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 개소식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몽골..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의 편견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많은 이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으며 몽골 울란바토르 내 정부 노동사회복지부 1층에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인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 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카페모아는 세계 최초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커피전문점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2009년 처음 개소하여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의 편견과 냉소적인 분위기로 대부분 직업을 갖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한국 내 카페모아의 성공사례를 모델링하여 KOICA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몽골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훈련이 진행 중이며,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4기 훈련생 6명의 시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중 1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문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와 몽골 정부 기관인 노동사회복지부가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노동사회복지부 내 1층에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을 성공적으로 개소하였는데요.

이날 개소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최동익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정재남 대사, KOICA 몽골사무소 우동완 부소장,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교 남기영 총장, 몽골한인회 국경철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G. Unurbayar(우누르바야르) 차관,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 D.Gerel(게렐)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동익 사무총장은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을 통해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도 비장애인 바리스타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으며,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에 취업하게 된 Gashulang(가슈랭) 바리스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카페모아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음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몽골 구청 주민센터 내 두 번째 카페모아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몽골 내 수 많은 카페모아점이 개소하여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또한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국제장애인지원센터 (02-880-0870~3)  
근로사업장 (02-880-0590~2)



# 2018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8월 24일 복지관 강당에서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시각장애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6천 9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선태 목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건철 장로(실로암의료 선교복지연합회 총재), 김병규 회장(주)AMO 그룹, 김관상 대표이사(CTS JNC), 최동의 사무총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무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선태 목사는 “성공한 인생이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주변의 인정을 받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서 김건철 장로, 김병규 회장이 장학생들에게 차례로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선배 효명장학생이자 서울시 공무원인 김장훈 주무관은 “효명장학금을 통해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효

‘남을 위한 인생을 살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헬렌켈러의 말처럼 실로암은 매년 효명장학금을 통해 시각장애 대학생들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선물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감동적인 인생을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게 돕고있는데요. 감동의 순간 2018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스케치해보았습니다.

명장학생 선배로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효명장학생 이아영 학생(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은 “효명장학금이 있었기에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었다.”며 교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전하겠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효명장학생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축하 연주하는 수여식을 한층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효명장학금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각장애 대학생 293명에게 약 9억 8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수많은 시각장애대학생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사업 문의 직업지원팀 (02-880-0850~9)



시각장애대학생 25명에게 6천 9백만 원 지원

2010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293명의 시각장애 대학생에게 약 9억 8천만 원 지원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8년 7월 20일(금), 복지관 강당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열려



사업 문의 자립생활센터 (02-880-0810~4)

## 2019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나병택)에서는 2018년 7월 20일(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입장을 표명하고 시각장애인 대표 기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장애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번 토론회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좌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발제)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각장애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운택 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윤상원 지부장, 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 조봉래 원장, 이용자대표 최경천이 나섰습니다.

## 현재로서 종합판정 도구 불분명

현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판정 도구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조봉래 원장은 “등급제 폐지까지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제도개편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민관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종합판정표를 사용할 것인지 대중에 공개된 사항이 거의 없다”면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는지, 과연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 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만 더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등급제 폐지 이야기가 나온지가 6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 해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창구가 없다. 등급제 폐지 이후 시각장애인의 불합리성에 대해 학계는 물론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조차 관심이 적다.”라며 날선 비판을 하였습니다.

##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표 개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공동행동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한 대 입을 모아 밝혔습니다.



2018년 실로암복지관 사람들의  
희망 인터뷰

## ‘Seeing is Believing’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을 지향합니다. 또한, 영국 런던이 본사이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가장 역동적인 60여 개 나라에서 150년 이상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금융 그룹인 스탠다드차타드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interviewee  
SC제일은행 지속가능경영팀  
권나영 담당자

### Share & Care

SC제일은행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와 경제 성장을 도우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쉐어앤케어(Share & Care)를 테마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2일의 유급 자원봉사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 스스로가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직접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Seeing is Believing

지난 2013년 ‘시각장애인 야구단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SC제일은행의 범세계적 지역사회공헌 활동인 ‘예방 가능한 실명퇴치를 위한 캠페인’ ‘Seeing is Believing(보이는 것을 믿는다)’ 의 일환이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은 2003년부터 1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천억 이상의 기부금을 모아 410만 건 이상의 개인수술과 1억 6,350만 명에게 안과 진료와 안구 건강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명을 예방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해 오디오북을 기부하는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하며 호흡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Here for good

실로암과 함께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올해 6월에 진행했던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마음축제에서는 시각장애인 체육 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SC제일은행 직원들이 본업을 살린 무료 금융/재테크 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는데요. 금융/재테크 상담에 함께한 직원 봉사자분들, 그리고 SC제일은행 부스를 방문해주신 많은 시각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특별한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직원 봉사자는 은행원으로서 지식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금융/경제 관련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로암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시각장애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라며,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 together with siloam

최근 SC제일은행의 지역사회공헌 관심사는 ‘다음 세대가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로암과 앞으로 아동, 청년층 시각장애인분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저희 직원들이 은행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 community

SC제일은행은 다양한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더착한TV 페이스북 www.facebook.co.kr/sc.thegood’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팔로우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 효명장학생 STORY

서울시청 사회적 경제담당관실  
김장훈 주무관



### 안녕하세요, 김장훈 주무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김장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한 지는 만2년 정도 되었습니다.

### 주무관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한데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중·고등학교 시절 안팎으로 또래 친구들과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몰래 놀다가 부모님이 알게 되어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업시간만큼은 공부에 집중하였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무렵 녹내장을 얻게 되었는데, 시력이 점점 감퇴하며 제 삶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 대학생 시절, 효명장학금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으셨는데요,

#### 주무관님께 장학금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큰 의미로 세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준 장학금이에요. 홀로 타지 대학 생활을 하며,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깊이 있게 진로를 고민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마침 효명장학금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진로를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효명장학생 출신으로 받은 사랑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기 위한 노력, 실수하는 상황에서도 보일 수 있는 노력, 이러한 노력이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고 효명장학금이 가르쳐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효명리더스클럽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 후배 동기들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막상 눈이 나빠져 공부를 못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절실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절실함이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 현재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신데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때 시각장애인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서는 신속성, 접근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갑작스럽게 과업이 떨어지는 경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디다 보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시절 효명리더스클럽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회, 학회 활동을 한 것이 알게모르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생시절 선배, 후배, 친구와 동기가 있었다면, 직장에는 상사, 동기, 후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업무를 처리할 때나 인간관계를 지속할 때 팀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든 생각해보고 반대로 동기나 후임 입장에서든 생각해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 후배 효명장학금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예전에 선배들이 대학생때까지를 떼는 순간 ‘그때 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보니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사회인이 되는 순간, 여러 제약(시간, 상황 등)으로 인해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할 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관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❶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_07.10  
서울시 관계자들과 중별장애인복지(시각, 청각, 지체, 뇌성마비) 관장들이 모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관운영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❷ 비장애인 선임직원 시각장애체험교육\_07.10,07.12
- ❸ 신나는 여름 가족캠프\_07.19~21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강원도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의 시원한 자연을 느끼며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❹ 실로암배움울타리 스포츠 활동(볼링)\_07.31
- ❺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화면해설영화 상영회\_08.02~24
- ❻ 관계증진프로그램 '환상의 짝꿍'\_08.25  
사회서비스팀에서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상호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뮤지컬 관람 등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❼ 아외나들이 문화공연 관람\_08.27  
지역사회지원센터에서는 공연기획사인 컬러커넥트의 후원으로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뮤지컬 '김종욱 찾기'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실로암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❶ 관현맹인전통예술단 7~8월 공연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제7회 정기연주회, 관악구자원봉사센터 공연, 심산 북카페 콘서트, 장애인 예술가들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특별무대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 ❷ 조이풀중창단 명지병원 초청 '한낮의 로비음악회'\_07.13
- ❸ 찾아가는 전시 인천해광학교\_07.17~18  
축각교재제작팀에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미술 교과에 나오는 명화를 촉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❹ 노래하는 인문학 콘서트\_08.18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와 걸그룹의 조상들이라는 주제로 노래하는 인문학 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 ❺ 정보기지원팀 하반기 보조공학기대어 및 활용교육\_08.18
- ❻ 제75회 낭독봉사자 신규교육\_08.27
- ❼ 그룹사운드 교실(밴드)\_7~8월
- ❽ 2기 시각장애 교사 직무연수\_7~8월
- ❾ 방학특강 영어토론교실 개강\_7~8월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학습지원센터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slv.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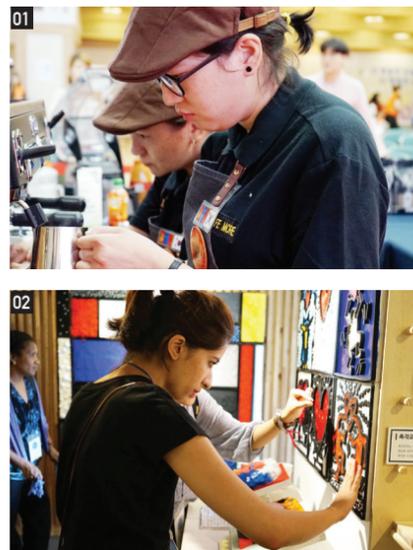


##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 국제장애인 지원사업

- ❶ 2018년 제5회 시각장애 학생 국악캠프 '소리 통(通)'\_07.24~26  
음악교육팀에서는 국악캠프를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고 향후 전문음악인으로서 음악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국악에 관심이 있거나 전통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국악캠프를 진행했습니다.
- ❷ 시각장애청소년 진로체험(성우체험)\_08.13
- ❸ Happy Mom & Kids 독서활동도움미 접자동화책제작\_7~8월
- ❹ 청소년독서논술교실(한국사,세계사)\_7~8월
- ❶ 제7회 메타넷과 함께하는 장애인바리스타대회 참가\_07.12  
금번 장애인바리스타대회에는 카페모아 올란바토르점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단체전에 출전하여 승수를 뽑내었으며, 개인전에는 한국의 황은별 바리스타가 출전하였습니다.
- ❷ 아시아태평양 장애청년 리더 기관 방문 및 간담회\_07.17  
아시아태평양 10개국에서 10명의 장애청년 리더들이 기관라운딩과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❸ 우즈베키스탄 장애인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MOU 체결\_08.31  
2018년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안보건, 재활의료사업과 경제적 자립기반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❶ 하반기 직업훈련 입학식(바리스타 21기, 베이커리 12기, 여성안마 2기, 점역교정 9기)\_07.02
- ❷ 서울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직업체험(전시가이드)\_07.19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미취업 혹은 경력단절 시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시가이드라는 직종에 대해 알리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❸ 한식조리콘서트 제1차 요리시연회 실시\_08.31  
직업지원팀에서는 제1차 요리시연회를 실시했습니다. 한식조리콘서트 3기 시각장애인 교육생 7명은 많은 지역주민 앞에서 오징어초무침과 탕평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 ❹ 직업지원팀 이동 직업평가\_7~8월  
직업지원팀에서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학습능력 진단 및 진로설정, 직업재활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평가를 하였습니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실로암 직업재활시설

## 시각장애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여름 체험학습 프로그램

영월로 떠나는 Let's Go 시간탐험대\_08.16~17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시각장애인 부모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야외활동 등의 제약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향유의 기회가 매우 한정적인데, 시각장애인 부모가정 아동,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역사, 문화, 생태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